

「홍의전(洪漪傳)」에 나타난 병들고 소외된 몸의 문학적 치유와 연대, 그리고 초월성*

진민희**

〈차 례〉

1. 서론
2. 「홍의전」 서사의 구조와 주요 내용
3. 천독(天讀), 소외된 몸의 문학적 치유와 연대
4. 수암(睡菴), 병든 몸의 초월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의 「홍의전(洪漪傳)」에 나타난 ‘천독(天讀)’과 ‘수암(睡菴)’ 서사를 중심으로, 병들고 소외된 몸이 문학적 치유와 연대의 과정을 통해 주체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홍의(1765~1807)는 하지 보행 장애와 척추 장애로 인한 자발적 고립 상태에 머물며 ‘비경(斐卿)’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독서와 교유 활동을 통해 사(士)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특히 교유자들은 홍의가 『한서』를 칠천 번 탐독하며 불우한 현실을 역사적 서사로 내재화한 점에 주목하여, 그를 ‘천독지사(天讀之士)’라 칭하였다. 천독은 신체적 결핍을 지적 실천을 위한 천명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한편 심능숙은 홍의의 당호 ‘수암’을 통해 그의 몸을 ‘신선이 잠시 빌린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병든 몸을 초월적 존재로 재의미화한다. 이는 현실적 신체 조건을 한시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존재를 상위의 의미 체계 속에 위치시키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처럼 천독이 병든 몸을 매개로 한 치유와 연대의 형성 과정을 드러낸다면, 수암은 적선(謫仙) 모티프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고전연구학회 133차 동계학술대회에서 ‘소외된 몸과 물질성, 그리고 고전문학’이라는 기획주제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박사

를 통해 병든 몸을 초월적 존재로 이해하게 하며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이와 함께 본고는 조선후기 문인 사회에서 강조된 ‘지인(知人)’과 ‘지아(知我)’의 개념이 홍의의 독서와 교유 활동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를 고찰한다. 반복 독서는 타자의 삶과 역사적 평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강독과 시사 활동은 홍의로 하여금 현실의 고립을 극복하고 문학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홍의전」은 병들고 소외된 몸이 문학적 실천을 통해 치유와 연대를 획득하고, 나아가 초월적 의미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홍의의 서사는 고전문학에서 병든 몸이 단순한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구조 속에서 존재론적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본고는 이를 통해 조선후기 문학이 지닌 신체 인식의 다층성과 문학적 치유의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주제어 심능숙(沈能淑, 홍의(洪漪), 『후오지가(後吾知可)』, 남고시사(楠阜詩社), 지아자(知我者)

1. 서론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의 시문집 『후오지가(後吾知可)』는 그가 평생에 걸쳐 교유했던 문인들과 관련된 글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그 중 1807년에 쓰인 「홍의전(洪漪傳)」은 하지 보행 장애·척추 장애 등을 지닌 홍의(洪漪, 1765~1807)를 조명한 인물전이다.

『후오지가』 내의 인물전은 총 7편이다.¹⁾ 그 중 당대 기인과 소외된 지식인에 대한 작가의 지극한 관심으로 창작된 「이은전」·「고은선생전」·「홍의전」 등의 작품성과 의의는 높게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이은전」과 「고은선생

1) 「이은전(李嶠傳)」, 「고은선생전(孤隱先生傳)」, 「홍의전」, 「애암심공기사소전(愛菴沈公記事小傳)」, 「열녀권유인소전(烈女權孺人小傳)」, 「이술원전(李述源傳)」, 「이우방전(李遇芳傳)」

전」에 대한 개별 작품 연구는 깊이 있게 다루어져 온 반면,²⁾ 「홍의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홍의전」의 대략적인 내용 소개는 장효현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 장효현은 심능숙의 현실인식과 산문세계를 분석한 글에서, 「궁불우시(窮不遇時)」의 삶이 홍의와 같은 소외된 문사와의 교류로 이어졌고, 「현실에 쓰이지 못한 불우한 인재」의 전형적인 인물상이 「홍의전」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³⁾ 이후 진민희는 심능숙 산문 및 남고시사(楠臯詩社)의 문학세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홍의의 교류망을 단편적으로 조망하고, 그가 지향한 우정 담론과 도선적 이인 서사의 배경을 일부 검토한 바 있다.⁴⁾ 그러나 기존 논의는 심능숙 중심의 시사 활동과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 치중하여, 본 텍스트가 지닌 미시적 서사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고는 「홍의전」을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내부에 집약된 서사의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 심능숙이 홍의를 입전한 까닭은, 홍의의 신체적 특징과 세계와의 실존적 갈등, 그리고 이를 경유하여 형성된 자아 인식의 경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홍의가 병들고 소외된 몸을 문학적 치유와 연대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나간 서사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홍의는 서로를 「나를 알아주는 이[知我者]」로 승인하는 서울 남촌의 시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독회를 주도하며 문인 사

2) 장효현, 『심능숙 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1~255쪽; 진민희, 「소남 심능숙 산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76~99쪽; 「조선후기 이인 이패랭이[李平涼] 관련 서사에 대한 고찰」, 『국문학연구』 42, 국문학회, 2020, 213~245쪽.

3) 장효현, 「심능숙 문학에 나타난 현실인식」, 『우리문학연구』 32, 우리문학회, 2011, 137~166쪽.

4) 진민희, 위의 글, 2016, 42~48쪽; 「조선조 「신루기(蜃樓記)」 작품군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290~292쪽; 「심능숙의 남고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16~129쪽.

회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였다. 「홍의전」은 장애를 극복한 ‘성공 서사’가 아니라, 병든 몸을 매개로 형성된 인정 구조 속에서 새로운 존재론적 주체성을 추동해 나간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유자들은 장애를 얻은 이후 『한서(漢書)』를 칠천 번이나 탐독한 홍의를 가리켜 ‘천독지사(天讀之士)’라 칭하였다. ‘하늘이 그에게 병을 내려 책을 읽게 했다’는 뜻의 이 역설적인 명명은 홍의의 병든 몸이 독서와 사회라는 지적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천명’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병든 몸은 고립의 이유가 아니라, 문학적 연대를 통해 결속되는 새로운 삶의 조건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심능숙이 홍의의 당호인 ‘수암(睡菴)’을 ‘신선이 잠시 빌린 몸’으로 해석한 대목 역시 주목된다. 이는 병든 신체를 결핍되거나 손상된 물질로 보지 않고, 속세에 한시적으로 머무는 초월적 존재의 형식으로 재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홍의의 육체적 한계를 실존적 초월의 가능성으로 확장하며, 질병의 고통을 미학적·철학적 층위에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홍의전」에 구현된 천독과 수암의 서사는 병들고 소외된 몸이 단순한 결핍의 대상이 아닌, 문학적 치유와 연대 속에서 물질적·관계적 힘을 지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보게 한다. 이는 조선후기 문학의 신체 인식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문학이 수행하는 치유와 연대의 힘을 재조명하는 유의미한 시도가 되리라 기대한다.

2. 「홍의전」 서사의 구조와 주요 내용

「홍의전」은 1807년 홍의 사후에 지어진 총 954자의 인물전으로, 『후오지가』 권 5에 수록되어 있다. 심능숙은 ‘가계와 자질(기)-발병과 고립(승)-

교유와 연대(전)-임종과 논찬(결)’이라는 플롯을 취하여 『홍의전』을 썼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텍스트의 서사 구조와 주요 내용을 선제적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을 다루고, ㉣은 논지 전개를 위해 4장에서 논찬부와 함께 살필 것이다.

1) 가계 배경과 선천적 신체조건(㉠~㉢)

도입부는 남양 홍씨 가문이 몰락하여 파릉으로 낙향한 배경, 부친의 20년 근독(勤讀)의 결실로 이룬 가문의 재건과 홍의의 탄생 내력을 설명한다. 홍의는 유년기부터 과목즉송(過目卽誦)의 천품을 보였으나, 선천적으로 저서력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작가는 뛰어난 문재와 신체적 제약을 대조함으로써 인물의 비범성을 부각한다.

2) 발병과 자발적 고립, 독서로의 침잠(㉣)

14세에 산사에서 독서하던 홍의는 급작스럽게 하지 보행 장애와 척추 장애를 얻는다. 이에 그는 방구석을 향해 돌아앉아 독서에만 침잠하며 고립을 자처한다. 이 때문에 ‘비경(裴卿)’이라는 자를 얻게 되었지만, 『한서』를 7천 번 읽으며 문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3) 문학적 교유와 연대(㉤~㉦)

『한서』만 7천 번 읽은 홍의는 문인 사회로부터 ‘천독지사’라는 세평을 얻는다. 심능숙과의 정기적인 강독회 및 서울 남촌의 시사 활동을 주도하며 소외된 몸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난다. 이후 정조에게 고체시를 바쳐 약물을 하사받으며 공인 받는다.

4) 논찬과 당호 수암(睡菴)에 대한 해석(㉧~㉨)

43세에 위독해진 홍의는 ‘월국으로 들어오라’는 꿈 이야기를 남기고 숨

을 거둔다. 작기는 이를 당호 ‘수암’의 의미와 연결하여 홍의의 죽음을 초월적 귀환으로 해석한다.

3. ‘천독(天讀)’, 소외된 몸의 문학적 치유와 연대

「홍의전」은 홍의의 가계와 출생 배경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몰락한 남양 홍씨 가문은 파릉으로 낙향하였다. 파릉은 경기도 양천군 일대이다.⁵⁾ 부친은 파릉에서 20여 년간 농사와 독서를 병행한 끝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늘그막에 홍의를 얻었다. 조선후기 몰락사족의 생계와 학업, 그리고 가문 재건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홍의는 파릉 사람이다. 본관은 남양이나, 여러 대가 지나 몰락하여 가난해 지자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에 부친이 고향 집으로 내려와서 농사와 독서에 힘 쓴 지 20년 만에 집은 가난해도 여유가 생겼으니, 드디어 늘그막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당산에서 후사를 얻어 마침내 홍의를 길렀다.⁶⁾

말단의 ‘마침내 홍의를 길렀다[果育漪]’는 문장은 부친의 오랜 근독과 가문 재건의 결실로 홍의가 태어났음을 강조한다. 부친의 20년 근독은 이후 홍의의 독서 서사를 예비하는 서사적 진조로 작용한다.

홍의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다음에 이어진다.

㉡ 의는 태어나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행실이 돈독하며 말수가 적었다. 시력이 낮아도 사물을 잘 분별하고 스쳐 지나간 것까지 바로 외워버리니, 동학들

5) 『陽川郡邑誌』.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에 속해 있다.

6) 沈能淑, 『後吾知可』卷5, 「洪漪傳」: 洪漪巴陵人也. 系南陽, 數世而圯, 爲婁所侮. 父歸鄉廬, 力穡勤讀二十年, 家貧而裕, 遂舉進士晚, 而榮嗣于唐山, 果育漪.

은 감히 그를 넘어설 수 없다고 자인하였다.⁷⁾

㉠ 14살 때 산사에 들어가 독서를 하다가 병을 얻어 한쪽 다리를 절뚝이고, 몸이 굽게 되었다. 이에 한숨을 쉬고 서글피 탄식하며, “병세는 실로 나를 버렸어도, 내가 어찌 감히 자포자기하리오?” 하고, 책상 위에는 오직 『한서』와 『두시』만을 남기고 다른 책들을 휩쓸어 꽃아버렸다. 20여 년을 몸 바쳐 읽음에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으니,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이 들러 어찌 지내시느냐고 물으면,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병든 사람인지라, 귀빈을 모실 수 없겠습니다.” 할 뿐, 방구석에서 이전처럼 책만 읽었다.【구석을 향해 앉아 읽었다】 이때문에 사방 이웃에 그와 더불어 말을 주고받는 이가 없었다.⁸⁾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먼저 홍의의 신체적 특징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은 홍의의 뛰어난 재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력 문제를 언급하였다. ‘눈이 어두워’의 원문 ‘혼시(昏視)’는 노화나 시력 저하 등의 이유로 시야가 흐릿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맹(盲)고(瞽)와 같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글자나 사물을 뚜렷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저시력 상태를 뜻한다.

‘혼시’는 ‘변물(卞物)’·‘즉송(卽誦)’과 같이 홍의의 탁월한 인지력과 암기력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된다. ‘눈이 밝아야 관찰력이 좋고, 시각적 암기가 가능하며, 독서가 용이하다는 상식을 뒤집은 것이다. 곧 물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즉시 암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체적 조건에 종속되지 않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은 홍의가 가진 장애를 설명한다. 홍의는 14세에 독서를 하다가 병을 얻어[得疾] 한쪽 다리를 절뚝이고[鑿] 몸은 굽게[蹠] 되었다. 후술할 ㉢에

7) 「洪漪傳」: 漪生有茂才, 篤行寡言, 昏視卞物, 所過卽誦, 同學自謂不敢跂.

8) 「洪漪傳」: 及年十四, 讀書山寺, 得疾, 鑿而蹠, 乃喟然曰病實棄余, 余敢自棄, 案上獨留漢書杜詩, 揮他書而閣之, 委身二十餘年, 未嘗或懈, 親戚鄉里來過則起居動問, 罷遽曰病人不能將事于賓隅讀【向隅而讀】如故. 以是隣閤不與問聞.

서 ‘절뚝이고 뒤틀려 다리가 처지는 병[蹇崎委脚疾]’이라는 구체적인 묘사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홍의의 장애를 하지 보행 장애와 척추 장애로 범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시각적 손상과 이중 장애는, 독자로 하여금 홍의가 『한서』와 『두시』에 침잠하며 보낸 20년 세월의 처절함과 경이로운 집중력에 몰입하게 한다.

심능숙이 집중한 바는 홍의가 장애로 인해 겪은 고통의 크기나 비애감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홍의와 그의 주변인이 홍의의 장애를 대하는 태도에 주목한다. 홍의가 14세에 산사에 들어가 독서를 한 이유는 여느 사족 자제와 같이 과거 응시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그는 하지 보행 장애와 척추 장애를 얻은 후, 독서의 목적과 방식을 바꿨다. 모든 책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한서』와 『두시』만을 20년간 ‘몸 바쳐 읽음에 [委身] 한 번도 게을리한 적 없이’ 했다. 홍의의 말에 따르면, 이는 ‘자포자기[自棄]’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때 심능숙이 노린 ‘자기(自棄)’와 ‘위신(委身)’ 두 단어의 대비가 주요하다. 스스로 인의를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라 하는데,⁹⁾ ‘위신’은 몸을 바친다는 의미의 ‘기신(棄身)’의 뜻도 내포한다. 장애는 홍의를 온전한 신체로부터 버려진 존재로 만들었지만, 홍의는 독서의 행위에 자신의 병든 몸을 내던져 바침으로써 문사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지켜낸 것이다.

그러나 홍의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했다. ‘위신’에는 놓아두대[置身] 기탁하대[寄身]는 뜻도 있다. 홍의는 장애를 얻은 자신의 몸을 20년간 방 안에 놓아두고 기탁하여 의지했다. 자신의 안부를 묻고자 방문한 친척과 이웃을 대면도 하지 않고 병든 몸을 내세워 소통이 어렵다고 선을 긋는다. 그리고 방구석을 향해 돌아앉아 책을 읽었다. 스스로 소외된 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9) 『孟子·離婁上』: 言非禮義, 謂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㉔ 그러나 서계(西溪) 이종필(李鍾弼)과는 벗으로 잘 지냈다. 종필은 자가 백량(伯良)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사(奇士)’라고 칭했다. 그는 많은 서적을 두루 읽어 사람을 보는 식견이 밝았는데, 또한 은사(隱士) 이연수(李年秀), 상서(尙書) 이익모(李翊模), 그리고 나와도 서로 친했다. 그가 매번 말하기를, ‘나는 남을 잘 알아주고 아끼는 것으로 죽할 뿐이네.’ 하였다.¹⁰⁾

㉕ 처음에 내 나이가 아직 동자도 되지 못할 때, 백량이 말했다. “너는 독서에는 힘쓰나 아직 벗이 없구나. 무릇 학문과 견식이 높은 선비로서 자기를 돕는 유익한 벗이 없다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으리오? 너는 천독지사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느냐? 홍의라는 거인이 있는데, 자를 ‘비경’이라 하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지.” 내가 물었다. “그에 대해 들은 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독’이라고 부릅니까?” 백량이 말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으나, 절뚝이고 뒤틀려 다리가 처지는 병에 걸리는 운명을 얻었으니, 『한서』에 침잠하여 거의 6, 7천 번을 읽었을 것이다. 아마도 하늘이 그에게 병을 내려 읽게 한 게지. 그래서 ‘천독’이라고 한다네. 이 사람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자네를 위해 내 소개해줍세.”¹¹⁾

㉔과 ㉕에서는 홍의의 교유관과 교유망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홍의의 교유관계를 살펴보자. 이종필(?~?)은 1800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19세의 심능숙과 신기루를 구경하러 황해도 문화에 위치한 작도(鵲島)로 유람을 떠난 인물이다. 4박 5일간의 여정은 오직 신기루만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 기사 이종필이 은사 이연수와 친했다는 점도 이들 집단의 성

10) 『洪漪傳』: 然與西溪李鍾弼友善, 鍾弼字伯良, 世稱奇士也. 博覽群書, 明於藻鑑, 復與隱士李年秀李尙書翊模, 及僕相好, 每云吾知人而愛之足矣.

11) 『洪漪傳』: 初僕年未成童, 伯良嘗言, 爾勤於讀乎, 未有友也. 夫大方之士, 非有益己之輔, 安能自立? 爾不聞天讀之士乎? 有巨人洪漪, 字曰槌卿者, 其人矣. 日聞之已矣. 何謂天讀? 伯良曰之人也, 奇才而命蹇崎委脚疾, 沈身漢書讀, 殆六七千番, 殆天使之與之病而讀之也, 故曰天讀. 但此人不喜來人, 爲君介之.

12) 『유작도일기(遊鵲島日記)』, 『신루기(蜃樓記)』, 『신루기후서(蜃樓記後序)』, 『신루기소전(蜃樓記小傳)』.

격을 가능하게 한다.

㉔으로 넘어가보자. 홍의의 자호 ‘비경’과 ‘천독지사’에서도 그의 성품과 세평을 두루 엿볼 수 있다. 비경은 홍의가 두문불출하며 책 읽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붙여진 자이다. 스스로를 방구석에 몰아넣고 세상과 단절했던 소외된 몸의 상태가 확인된다.

이종필은 홍의가 『한서』만을 7천 번 읽게 된 연유가 그의 장애와 삶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으나, 절뚝이고 뒤틀러 다리가 처지는 병에 걸리는 운명을 얻었으니, 『한서』에 침잠하여 거의 6, 7천 번을 읽었을 것이다.[之人也, 奇才而命蹇畸委脚疾, 沈身漢書讀, 殆六七千番]’라는 문장은 홍의의 재능-운명-장애-독서로 이어지는 논리를 담고 있다. 이어서 이종필은 ‘하늘이 그에게 병을 내려 읽게 한 것이니, 그러므로 천독이라 부른다.[殆天使之與之病, 而讀之也, 故曰天讀]’고 했다. 독서에 매진하라고 하늘이 병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맹자(孟子)』에서 순임금의 고난은 하늘이 성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평한 것과 유사하다.¹³⁾ 따라서 홍의의 호가 다독을 뜻하는 ‘천독(千讀)’이 아닌, ‘천독(天讀)’인 것은 하늘의 뜻으로 얻은 고난에 순종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며, ‘천독지사’는 홍의를 존송하는 의미가 깊이 깃든 호칭이 아닐 수 없다.

본문에서는 특히 이종필이 다독가로서, ‘사람을 보는 식견이 밝았다[明於藻鑑]’고 서술한다. 사람을 보는 식견은 ‘지인(知人)’과도 통하며, 심능숙은 지인의 비결을 ‘다독’에 두었다. 이는 ‘매번 말하기를, 나는 남을 잘 알아 주고 아끼는 것으로 족할 뿐이네.[每云, 吾知人而愛之, 足矣]’라는 이종필의 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즉, 사람을 보는 식견이 밝은 이종필과 그의 교류자가 곧 군자임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지인’의 덕목은 일찍부터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되어

13) 『孟子·告子』: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왔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적절한 인재를 식별하고 공적 역할에 배치하는 핵심 역량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인식은 인재 천거와 등용의 서사가 반복되는 『서경(書經)』에서 확인된다. 당대(唐代)에 가서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하여 더욱 세분화된 기준을 통해 관리 선발의 원칙이 제도화되었다.¹⁴⁾

지인의 덕목은 곧 ‘지아(知我)’의 욕구로 확장된다. 자신을 알아주는 존재의 유무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감을 넘어, 사회적 인정과 출세의 가능성을 좌우하는 입신양명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지아 개념의 가장 이른 출처는 『시경·왕풍(詩經·王風)』의 「서리(黍離)」에서 확인된다.¹⁵⁾

「서리」에서 지아는 ‘깊고 절실하게 내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는 행동[深切瞭解我]’을 의미한다. 시는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근심 한다 하거늘,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한다네.[知我者, 謂我心憂, 不知我者, 謂我何求]’라는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지아자(知我者)’와 ‘부지아자(不知我者)’의 대비를 부각한다. 여기서 지아자는 화자의 내면적 고뇌를 이해하는 존재인 한편, 부지아자는 이를 세속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오인하고 배척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부지아자의 태도에 대해 화자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시는 결국 ‘아득한 푸른 하늘이여, 이것은 누구 때문인가[悠悠蒼天, 此何人哉]?’라는 탄식으로 귀결된다. 표면적으로는 한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상은 현

14) 풍위(豐偉)·변정(辯正)·준미(遵美)·문리(文理)·우장(優長)

15) 「黍離」는 견용의 침입을 받아 낙양으로 천도한 東周의 大夫가 옛 왕성 터를 보며 부른 노래이다.

彼黍離離，彼稷之苗。行邁靡靡，中心搖搖。知我者，謂我心憂，不知我者，謂我何求，悠悠蒼天，此何人哉？

彼黍離離，彼稷之穗。行邁靡靡，中心如醉。知我者，謂我心憂，不知我者，謂我何求，悠悠蒼天，此何人哉？

彼黍離離，彼稷之實。行邁靡靡，中心如噎。知我者，謂我心憂，不知我者，謂我何求，悠悠蒼天，此何人哉？

실 세계를 향한 비분강개의 정서를 함축한 물음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이후 동아시아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계승된다. 「서리」는 망국에 대한 우국지사, 혹은 회고시의 전형으로 인용되었다. 또한 재능 있는 문사가 불우낙착한 현실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장치로 변용되면서, 지아자의 부재에 대한 탄식과 비분강개의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결국 지아자를 갈망하는 심리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줄 성군과 자신을 천거할 수 있는 현신(賢臣)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역사적 평가의 문제다. 비록 생전에는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역사가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후대에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는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한 지식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응 방식이었다. 당대에는 자신의 의도와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후대의 온전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태도는 공자의 춘추관에 그 연원을 둔다.¹⁶⁾

마지막으로 지아의 의미는 ‘지기(知己)’,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벗으로까지 넓혀졌다. 북학파의 우정론은 조선후기 지아자의 욕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마테오리치의 『교우론』에 영향을 받은 박지원의 우정론 연구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¹⁷⁾ 후술하겠지만, 박지원은 홍의·심능숙·이연수·이익모 등과 함께 사회 활동을 했다. 따라서 심능숙을 비롯한 교유자들 역시 18세기 후반기에 열풍을 일으킨 교우론과

16) 『孟子·滕文公下』: 春秋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17) 박기석, 『연암 소설의 심층적 이해』, 집문당, 2008, 33~50쪽; 이홍식, 「조선 후기 우정론과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263~300쪽; 김명호, 「燕巖의 우정론과 西學의 영향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265~288쪽; 배주연, 「마테오 리치 『交友論』과 한·중에서의 反響」, 『比較文學』 70, 한국비교문학학회, 2016, 119~142쪽.

붕우론 등을 접했으리라 추측된다.¹⁸⁾

이와 같은 지아자에 대한 갈망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인정 욕구의 한 양상으로, 그 형성과 실현 방식 역시 문학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왔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 지아자를 찾는 경향이 문학 전반에 빈번히 나타난다.¹⁹⁾

홍의와 이종필을 비롯, 이들 교류자 간에는 그 무엇보다도 지인과 지아가 중요했으며, 서로의 지기가 되어 그들의 정체성, 즉 ‘재능 있는 문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독서는 지인지아지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자, 지인의 덕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천독지사 홍의와 다독가 이종필의 우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홍의가 굳이 『한서』에 침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서』는 개인의 수양서가 아니라, 역사서이다. 홍의는 7천 번의 독서를 통해 『한서』 속 역사적 인물들의 서사를 병들어 불우한 자신의 몸에 내재화하였다.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당대의 평가와 좌절, 훗날 역사적 재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복 독서를 통해 내면화한 것이다. 특별히 심능숙은 홍의의 독서를 ‘침신(沈身)’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앞서 살펴본 ‘위신(委身)’의 내던져 바쳤다는 뜻과 내버려 두었다는 뜻, 이 중의적 의미와 완벽하게 조응한다.

『한서』는 지인과 지아의 서사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텍스트이기도 하다.

18) 이상 지인과 지아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진민희의 글이 자세하다.(『沈能淑의 楠阜 詩社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16~129쪽.)

19) 진재교, 『알아주지 않은 삶』, 태학사, 2005, 5~427쪽;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자의식 변모와 그 방향성」,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111~132쪽; 박수밀, 「지식인의 자아인식」, 『18세기 지식인의 생각과 글쓰기 전략』, 태학사, 2007, 67~94쪽; 『오우아 : 나는 나를 벗 삼는다』, 메가스터디Books, 2020, 1~298쪽; 송혁기, 『나만이 알아주는 나 : 조귀명 평전』, 글항아리, 2021, 1~390쪽; 박동욱, 「조선 후기 한문학과 ‘자의식의 확대」, 『어문연구』, 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3, 237~264쪽.

홍의는 『한서』를 다독하며 지아자와 부지아자 사이의 갈등을 구조화하여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처해진 현실을 감당했다. 지아자를 감별할 기준을 얻은 덕에, 이종필 등의 지기도 얻을 수 있었다. 자신의 병든 몸을 스스로 방에 가두었던 14세의 홍의는 『한서』를 통한 문학적 치유로 인해 30대의 천독지사가 되어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석하고 강독을 이끄는 이름난 문인이 되었다.

이때 홍의의 치유나 정체성의 회복이 타자에 의한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고 회복한 것이었음이 중요하다. 홍의와 교유자들의 만남은 7천독을 마친 후가 아니라, 7천독 중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홍의의 문학적 치유는, 주체적 다독과 유대적 강독 두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에 내가 처음으로 만나러 가서 여러 날을 머물고 돌아왔다. 의가 편지를 보내오니, 대략 이러했다.

“... 오늘날 그대가 지은 글을 보고, 고론을 듣자하니, 기량과 재주가 불가할 바가 없겠소. 그러나 그대는 주일지공(主一之工)은 한 적 없고, 다른 이에게 사숙만 했을 뿐이구려. 모름지기 10년의 공부를 계획함에는, 급히 하지 않고 거두어 들인 연후에야 힘차게 날아올라 높은 데서 바라보는 날이 있을 것이오. 나는 새가 빠르게 날갯짓하고서 가까운 데에 멈춰버리는 것과는 같지 않도오.”

나는 마침내 그와 함께 과정(課程)을 정해놓고 달마다 3번씩 강론을 하였다. 의는 책을 강론할 때마다 매번 작자의 뜻까지 잘 궁구하였다. 또한 당대의 시대론을 근거로 하여 가부를 따지며 논단하였는데, 그 명료함이 마치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하였기로 모두가 그가 강론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유가, 불가, 율력에 대한 책들에는 본디 어두웠지만,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었고 모두 의에 합치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중하였다.²⁰⁾

20) 「洪漪傳」: 僕始往見, 留數日而歸. 漪以書抵之, 略曰, … 今見所述, 聽其高論, 氣量才器無所不可. 然無主一之工, 私淑於人而已. 須計十年之工, 不急而收之然

심능숙은 이종필의 도움으로 홍의에게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홍의는 심능숙과 강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중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다수와 강독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진행되는 강독회에 심능숙이 참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홍의가 심능숙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급히 말라 조언한 부분은 『후한서(後漢書)』 「풍이열전(馮異列傳)」의 고사를 들어 비유한 것이다. 후한의 장수 풍미(赤眉)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나섰다가 처음 싸움에서 대패하고, 얼마 뒤에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적미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에 황제가 친히 글을 내려 위로하기를, “처음에는 회계(會稽)에서 깃을 접었으나 나중에는 민지(漣池)에서 떨쳐 비상하니, 참으로 ‘동우에 잃었다가 상유에 수습하였다[失之東隅 收之桑榆].’라고 할 만하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흔히 초년의 실패를 노년에 만회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젊었을 때 기한을 세워 공부하되 꾸준히 힘쓰면 후에 이루는 바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동우는 새벽을, 상유는 저녁을 뜻하니 각각 초년과 노년을 상징한다. 홍의 자신과 부친이 20년 이상을 기약하며 공부에 매진했기에 초년생인 심능숙에게 건낼 수 있는 조언이었다. 고사의 출처가 다름 아닌 『후한서』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²¹⁾

홍의의 강독 방식은 첫째, 과정을 함께 정하였다. 이것은 사제지간의 강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달마다 3번씩, 장기간 모임을 진행했다. 셋째, 작자의 뜻을 끝까지 따지고 주어진 텍스트를 궁구하되, 작가론과 시대론을 아울러 작품의 안팎을 두루 비평했다. 넷째, 주제와 책을 가리지

後，有雄掉高視之日，無如飛鳥疾翔而近止也。僕遂與之定其程課，月三而講，漪每論書，善究作者意，又舉當時義可否而斷之，瞭若親見聞者，皆悅眼。於儒釋律曆書，雖素昧，有問必答，皆合於義，人皆敬重。

21) 진민희, 앞의 글, 2023, 116쪽.

않았다. 유불도와 울려퍼지 아올러 강독의 주제로 삼았고 논의의 내용도 모두가 인정할 만큼 이치에 맞았으니, 그의 박식을 유추할 수 있다.

홍의의 작품은 현전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후오지가』를 통해 그의 문학 활동을 편린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다. 먼저 1797년 가을, 홍의의 서실에서 열린 시회에서 지은 심능숙의 시를 살펴보자.

성긴 잎 사이 싸늘히 기러기 날고 하늘 아직 밝지 못한테	疎葉寒鴻未曙天
가을 소리 흩어 떨어지매 아득히 끝도 없도다.	秋聲散落杳無邊
때로는 굴원을 송별하는 듯하나	有時如送三閭客
앉은 동안에는 도리어 일지선마저 잊노라.	坐處還忘一指禪
외로운 나무 흔들림은 문득 바람 지나감이요,	獨樹轉搖風忽過
깊은 누각 은은히 비추는 건 홀로 걸린 달일세.	深樓隱映月孤懸
간절하고 처연한 마음에 거듭 돌이켜 보자니	殷勤惆愴重回想
천 년 전에 나를 알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노라.	恨不知吾千載前 ²²⁾

당시 심능숙은 16세, 홍의는 33세였다. 시 전체에 가을날 처연하고 서늘한 정조가 서려 있다. 삼려객은 초나라에서 삼려대부(三閭大夫)직을 맡았던 굴원을 뜻하는데, 시에서는 심능숙과 홍의에 비견되었다. 일지선은 불교 선종의 용어로, ‘만 가지 법이 결국 하나로 돌아감[萬法歸一]’을 비유한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를 관통하여 평생 수련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깨달음이다.²³⁾ 심능숙은 신체적 장애를 잊게 하는 것은 도선적 수행이 아니라, ‘앉아 있는 이 자리’, 즉 벗들과의 시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압권은 ‘천 년 전에 나를 알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노라[恨不知吾千載前]’라는 마지막 구절에 있다. 나는 천 년 전의 굴원을 알아줄 수 있는 자였는

22) 沈能淑, 『後吾知可』 卷1, 「夜會裴卿氏【洪漪】書室, 試酒奉和李令韻」.

23) 송나라 구지(俱胝) 화상이 천룡(天龍) 화상에게 불교의 교의를 물었을 때, 천룡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자 구지가 즉시 크게 깨달았다.(『傳燈錄』, 「金華俱胝傳」)

데, 내가 천 년 후에나 존재하여 서로에게 지아자의 부재가 생겼다. 이로 인해 굴원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나 역시 한스러운 현재에 놓여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토록 처연한 정한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서로를 알아주는 이들과의 문학적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사의 순계가 꺾힌 뒤에 모이는 자가 오히려 많았다. 【노소문음을 합하여 14인이었다.】 심영수가 나이는 가장 어렸으나 시는 가장 잘 지었기로, ‘2×7은 14’의 뜻을 취하여 그 모임을 ‘칠칠회’라 이름하고, 시사를 주관하게 하여 칠월 칠석에 이르러 다시 칠칠회를 베풀게 하여 간략히 술과 안주를 갖추어 밤새 이야기를 하며 글을 쓰게 했으니, 나중에 도착하는 자에게 벌을 주기로 약속했다.

벗 이서계가 때에 맞춰 도착했고 박연암 어르신과 임연도는 함께 모여 있었으나 영수는 근처에 거주하면서도 뒤에 도착했다. 이에 내가 벌을 내리고자 하니, 연암이 명령하시기를, “... 이제 다시 칠언절구 세 편으로 벌을 내리되, 매 편의 말구는 모두 대련을 병용하게 하고 척선을 허용치 말라.” 하였으니, 즉각 지어 올렸다.

내가 그를 곤란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시제와 결구를 단속하여 말했다. “이 세 편을 보자니, 민첩하고 경계함이 없지는 않으나, 시가 시 되는 까닭은 그 율격을 중시하고 사실에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제2편의 말구 운목과 제3편의 초구 외선의 운목에 모두 평성을 썼다. 이는 시인이 꺼리는 기법일 뿐만 아니라, 거칠고 소홀하게 끝맺은 것이니 벌을 주는 본뜻과 전혀 다르게 되니 이 또한 작은 흠이다. 말구가 ‘달이 원과 같다’는 세 글자는 크게 혐의가 있는 문구이다. 지금 초이레 반달 때라 아직 달이 둥글지 못한데, 어찌 사실을 쓰지 않고 숨기고 꾸미는 데에만 힘썼단 말인가? 그 하는 바가 더욱 통탄스러울 만하다. 다시 제3편의 운을 바꾸어 쓰도록 하라.” 이에 영수가 즉시 지어 올렸다.

대개 ‘달이 원과 같다’는 뜻은 오늘 밤의 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완성 이 달이 둥글게 이루어짐과 같다는 뜻이었기에 내가 짐짓 그를 억누른 것이다. 영수가 내 뜻을 알고 즉시 입으로 한 편을 읊으며 비평에 대하여 오히려 비평하니, 서계가 제3편 말구를 크게 칭찬하였다. “이 벌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시를

언을 수 있었겠는가?” 좌중에 나에게 이를 기록하라 하여, 희극의 시말을 간략히 적어 둘 뿐이다. 비경 짓다.²⁴⁾

위의 인용문은 1798년 7월 7일, 홍의가 서울 남촌에서 열린 시회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기록이다. 심능숙은 이 글을 「남사시령」이라는 제목 아래 주로 달고, 자신이 별시로 올린 절구 세 편을 실었다. 그 뒤에는 홍의의 평가를 받고 새로 지은 절구 「다시 제3편의 운을 바꾸어 쓰다(更覆第三篇韻)」도 실었다. 『후오지가』 안에서는 시 안에서 제하의 주로 기능하지만, 하나의 글로 따로 떼어보면 시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소품문이 된다.

마지막 저자의 기록을 보지 않았다면, 홍의가 지은 글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등장인물도 많고 사건도 요란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남사는 노소 문인 14명이 모여 ‘칠칠회’라 명했다고 했다. 본문에서 확인 가능한 참석인은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익모(1747~1812)·이연수(?~?)·임이주(任履周, 1761~1808)²⁵⁾·홍의(1765~1807)·이종필(?~?)·심능숙(1782~1840) 등이다. 이름난 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지만 이 중에서 가장 어린 심능숙의 시가 으뜸이었기에 시회를 주관하도록 했다고 한다.

24) 沈能淑, 『後吾知可』 卷1, 「南社詩令」: 詩社句題罷後, 會做者猶多【合老少文蔭爲十四人】, 沈英叟年最少, 而詩最著, 取二七十四之義, 名其會曰七七會, 使主詩社至七月七夕, 復設七七會, 略備酒饌夜話書, 所約以後到者有罰. 西溪李友適到, 朴燕巖【趾源】丈與任丈彥道同會, 而英叟居近來後, 余欲施罰, 燕巖令曰, … 今更以七絕三篇, 施罰, 而每篇末句, 並用聯對, 勿許隻扇, 卽刻製進. 余旣欲困之, 馭題禦墨曰, 觀此三篇, 非不敏警, 而詩所以爲詩者, 重其法律, 切於事實也. 今第二篇末句韻目, 第三篇初句外扇韻目, 並用平聲, 非徒詩家之忌法, 草草了當, 殊非施罰之本意, 此亦小疵. 末句月如圓三字, 大是嫌文, 今當初七半月, 尙未圓月, 何有不用事實, 專務掩飾? 所爲尤可痛. 更覆第三篇韻, 卽卽製進事. 蓋月如圓之意, 非謂今夜之月, 詩篇之成, 如月之圓成, 余故馭之. 英叟知余意, 卽口呼一篇, 因馭反馭, 西溪大批第三篇末句曰, 非此罰, 焉得此篇? 座中屬余記之, 略叙戲劇始末云耳. 槑卿題.

25) 원문에는 ‘임인도 어르신[任丈彥道]’으로 되어있으나, 오기로 추정된다.

시회가 서울 남촌에서 열린 것은 시회를 주관한 심능숙을 비롯해 많은 동인들이 남촌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1796년 무렵 계산초당(桂山草堂, 현 계동 중앙중학교 부근)에 살았다.²⁶⁾ 임이주의 집도 계산동에 있었고,²⁷⁾ 심능숙의 집은 회현방 소공동에 있었다.²⁸⁾

칠칠회의 인물들은 박지원 등을 제외하고 심능숙의 부친 심윤지(沈允之, 1748~1821)가 1784년 그의 소공동 집에서 결성했던 남고시사(南皋詩社)의 동인들과 대거 중복된다. 따라서 첫 문장 ‘시사의 순제가 과한 뒤에 모이는 자가 오히려 많았다.’에서 언급한 ‘시사’는 남고시사일 확률이 높다. 홍의는 1800년 심윤지의 임소였던 황해도 문산에 방문한 적 있으니, 이종필-심능숙-홍의-심윤지로 이어지는 교류망이었으리라 추정된다.²⁹⁾

박지원이 별로 요구한 선대격(扇對格)은 한 구절 안에서 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와 연이 부채처럼 마주 보도록 짓되, 절구의 말구는 3구와 대우를 맞추지 않고 시상을 한 번 비틀었다가 독자적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여운을 준다.³⁰⁾ 이는 문장 구조와 단어 성격이 비슷해야 하므로 기법도 제한이 되고 시상의 전환과 마무리를 짓기도 매우 어려워진다. 홍의는 이를 빌미로 심능숙의 시어와 운용을 다시 비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좌중의 시적 긴장과 유희가 고조되었다.

가장 어리고 가까이 사는 심능숙이 시회에 늦은 일과, 박지원이 그러한 심능숙에게 벌을 주고자 일부러 어려운 방식으로 시를 짓도록 한 것, 그럼에도 능숙하게 시를 지어 보인 심능숙의 재치, 이러한 심능숙을 끌리고자 더욱 까다롭게 시어를 비평하며 다시 짓기를 촉구한 홍의, 다시 이에 즉시

26)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26~28쪽.

27) 權常愼, 『西漁遺稿』 冊5, 「貞陵遊錄」: “彥道家在桂山”

28) 진민희, 「靑松 沈氏 가문의 漢陽 南部 會賢坊 小公洞 家屋 世居와 그 의미」, 『서울과 역사』 122, 서울역사편찬원, 2026, 89~145쪽.

29) 진민희, 앞의 글, 2023, 36~56쪽.

30) 『茗溪漁隱叢話』, 前集, 「杜少陵」

를 지어낸 심능숙의 뛰어난 문재까지, 이 글은 오로지 시를 즐기는 아희의 현장만을 비춘다. 여기에서 병들고 소외된 홍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칠칠회라는 문학적 연대 속에 뛰어난 중견 문사로서 자리하고 있는 홍의만 존재할 뿐이다. 파릉에서 사립문을 닫고 방구석을 향해 몸을 돌려 앉아 홀로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비경은, 서울 남촌까지 나와 당대 최고의 문인 박지원 등과 소매를 나란히 하고 시회를 주도한 능동적 주체로 거듭났다. 강독회와 시사는 홍의의 신체적 제약을 초월하여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실존적 치유를 이끌어낸 핵심적 공간이 된 것이다.

4. ‘수암(睡菴)’, 병든 몸의 초월

조선 사회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보다 가문의 위상과 신분적 배경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장애가 곧바로 관직 진출의 절대적 제한 요인은 아니었으며, 영정조대에도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인물들이 요직에 오른 사례가 확인된다.³¹⁾ 홍의의 장애는 조선 정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㉔ 처음에 선왕께서 문교(文教)를 크게 드러내셨을 때에는, 홍의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아끼는 신하를 보내어 그의 원고를 들이게 하셨다. 그러나 글이 없자 고체로 시문을 여럿 지어 올리게 하셨는데, 상께서 기특히 여기시고 특별히 약과 음식을 내려주셨다.³²⁾

31)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 사우, 2019, 25~26쪽.

32) 「洪滄傳」: 初先王大闡文教, 聞滄之賢, 使近臣徵稿而入, 無之, 使之賦古體詩文數篇而進, 上奇之, 特給藥餌.

홍의는 몰락 사족의 후예였다. 그가 장애를 얻고 과거 공부를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그가 맺어온 교유망을 살펴보면, 뛰어난 문재를 지녔음에도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문인이나 은사들이 주를 이룬다. 홍의를 주요직에 천거할 능력을 가진 인맥이 없었다는 뜻이다.

홍의가 주력한 문체 역시 문제적이었다. 정조가 원고를 가져오라 했으나 홍의는 바치지 못했다. 이는 홍의의 시문이 정조가 강조했던 경학 중심의 고문보다, 교유자였던 박지원이나 심윤지 등의 것과 결이 같은 소품문에 해당되었던 까닭이라 추측된다. 정조는 다시 고체시를 지어 올리라 하였고, 결국 홍의는 이에 응해 약과 음식을 하사받는 데에 그쳤다.

그렇다면 홍의와 교유자들에게 그의 장애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 의는 자호를 당산이라 하였는데, 그가 사는 곳의 지명을 따른 것이다. 누대의 편액은 수암(睡菴)이라고 하였다. 의는 평소에 허약한 몸을 걱정하여 영남지역에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영남의 별서로 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병이 이미 위독해져, 밤에 부인을 불러 말하였다. “꿈에 귀신이 월나라로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통첩을 보냈으니, 아마도 일어날 수 없을 듯하구려! 내가 보던 『한서』는 심영수(沈莢叟)에게 전해주고, 내 뒤를 부탁하십시오.” 다음날 세상을 떠나매 향년 43세였으니, 부고를 듣고 온 자들이 서로를 붙들고 탄식하였다. 내가 가마(加麻)를 하고자³³⁾ 부친께 고하였으나 이렇게 답하였다. “그것이 정과 예에 맞겠으나, 비경이 병 때문에 승당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니, 너무 과한 것 아니겠느냐? 마음으로 상을 치르도록 해라.” ... ³⁴⁾

33) 조복을 입고 머리에 수질(首經)을 두르는 것을 이른다. 수질은 짚에 삼 겹질을 감은 둥근 테를 말한다. 벗이나 스승, 제자는 상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3개월, 혹은 3년을 가마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34) 『洪漪傳』: 漪自號唐山, 因其地也. 扁其樓曰睡菴. 漪素患羸瘁, 聞善醫於嶺邑, 決意歸南庄, 病已劇, 夜招夫人告之曰夢神移牒促入越, 殆不起乎! 吾所看漢書, 傳於沈莢叟, 托吾後也. 翌日卒, 年四十有三. 及訃至聞者相率咨嗟. 僕欲加麻, 告於親, 親曰是情禮, 然棗卿以病未及升堂, 無乃過乎, 以心行之也. ...

㉞ 소남자(小楠子)는 말한다. 나는 당산보다 17살이 어리지만, 사귄 것은 가장 친밀하였다. 상서 이익모가 일찍부터 ‘이 친구를 위해 전을 지을 자는 자네 아니면 나일세.’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공이 먼저 돌아가시고 당산도 돌아가서버렸다. 공이 지하에서 글을 지을 건지, 나더러 지으라고 남겨둘지 모를 일이다.

옛날 어릴 적에 내가 당산에게 ‘수암의 뜻을 물은 일이 있는데, 그가 웃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으니, 말해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자 당산이 말해주었다. “이 집은 선친께서 명하여 지으신 것이네. 선친께서 나이가 늙도록 아들이 없�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와서는, ‘내게 멀리서 온 손님이 있는데, 30년간 자던 중에 한 번 깨어나고자 하니, 잠시 그대에게 빌려주겠노라.’ 했네.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지어, 한 번 깨어남을 기다리게 한 것일세.”³⁵⁾

㉞ 아! 공은 기다리는 바를 알아 한 번 깨어나면 행할 바가 있으리라 여겼는데, 마침내 죽음의 때마저 미리 알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 한 번의 깨어남인가? 14세에 병들어 지금까지 30년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리도 딱 맞아떨어진단 말인가! 월나라로 들어간다는 꿈은 참이었을까, 아니면 죽음에 임박해 혼미한 정신으로 한 말일까? 그가 살아 있을 때, 신이 먼 곳에서 온 객으로 그 몸을 빌렸은즉, 정녕 월나라에서 온 객이로다. 아! 길이 멀기도 한데, 무엇하러 왔던가? 내가 외서에서 ‘하늘의 견책을 받아 이승으로 돌아온다[冥譴還因]’는 설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의 견책을 받아 오게 되면, 병을 가탁한다’ 하였으니,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없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대를 장차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재주와 기량을 쓰고자 함이었을까? 가슴을 치며 삶과 죽음의 이치를 생각하건대, 온 세상을 한 집처럼 여기니³⁶⁾ 또 어찌 멀고 가까움을 따질까? 홀로 남루(楠樓)에 머물며 조용히 그리워하니, 산전은 옛 모습 그대로

35) 『洪鴻傳』: 小楠子曰. 僕少唐山十七年, 而契最密, 李尙書翊模嘗言, 爲此友立傳者, 非君則吾, 今以公先歸, 而唐山沒焉. 未知公修文於地下耶, 留以付之僕歟. 曾在少日, 問睡菴之義於唐山, 笑而不言, 固請之, 唐山曰此可先君所命也. 先君晩而無子, 禱於山, 夢人告之曰, 吾有遠客, 欲睡三十年一覺, 暫借於君云. 庸是命名, 以待一覺.

36) 호월일가(胡越一家)의 ‘호’를 조선을 뜻하는 ‘선’으로 바꾸었다. 호는 북방, 월은 남방으로서 온 세상을 한 집처럼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다. (『資治通鑑 卷194 唐紀10 唐太宗上之下 貞觀 7年』)

로이고 초목은 철따라 나건만, 이 사람만은 유독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도다.³⁷⁾

앞서 살펴본 바, 홍의는 독서와 시회 활동을 통해 병들고 스스로 고립시킨 몸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치유하고 연대하며 소통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홍의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인 그 누구도 홍의의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극적인 손실, 약함, 수동성 등을 극복하고 영웅적인 통제력을 가진 ‘장애인 영웅’으로 설정하지도 않았다.³⁸⁾ 이러한 인식은 일면 조선후기의 의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신체적 불편함이나 장애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노화를 통해 생기는 후천적 장애가 당연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사료된다.

㉞에서는 홍의의 자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누대의 편액에서 따왔다는 수암의 뜻은 한참 뒤에야 제시되었다. 심능숙은 홍의의 죽음을 먼저 배치했다. 홍의는 세상을 뜨기 전에 꿈을 꾸고 이를 아내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꿈의 내용이 그의 자의식과 자못 밀접하다. 홍의가 받았다는 ‘귀신이 월나라로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통첩’은 ㉞과 ㉞을 통해 점차적으로 풀이가 가능한데, 이는 바로 수암의 서사와 이어진다.

영수와 소남은 심능숙의 자호이다. 심능숙은 ㉞에서 자신이 홍의와 가장 친밀하므로 홍의의 전을 지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호인 수암에 내포된 뜻의 신빙성을 높인다. 편액이 걸린 누대는 홍의의 선친이 지은 것인데, 오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여 산에서 기도하던 중 꿈을 꾸고

37) 『洪漪傳』: 噫! 公知所待, 一覺有所爲, 而乃知死, 是一覺耶? 十四而病, 到今爲三十年, 何其驗耶? 入越之夢, 是真耶? 其將死而眩言耶? 方其生也, 神以遠客借之, 則越中之客. 嗟! 遠道兮, 胡爲? 余嘗看外書, 有冥譴還因者說, 若曰, 有之以冥譴而來, 假之病焉, 無所試耶? 將子還因於他, 欲用其才器耶? 拊念在沒, 鮮越一家, 又何足以遠近哉? 獨處楠樓, 端憂靜念, 山川依舊, 草木時生, 伊人也, 獨不得而復見於世也.

38) 장애인의 영웅성, 장애인의 통제의 환상에 대한 글은 다음이 자세하다.(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2013, 29~130; 189~220쪽)

홍의를 얻었다. 홍의는 신선이 나타나 ‘내게 멀리서 온 손님이 있는데, 30년간 자던 중에 한 번 깨어나고자 하니, 잠시 그대에게 빌려주겠노라’라는 꿈을 꾸고 태어났으니, 곧 ‘30년간 자다가 깨어난 멀리서 온 손님’의 현신이 된다.

㉔에서는 ㉔의 꿈에 홍의의 꿈을 중첩하여 재해석한다. 심능숙은 홍의의 선친이 꿈속에서 만난 ‘멀리서 온 손님’의 고향이 바로 홍의가 유언으로 남긴 월나라일 것이라 추정했다. 여기서의 월나라는 영적인 공간이다. ‘월’이라는 글자가 내포한 ‘멀다’, 혹은 ‘초월한다’, ‘너머의 것’ 등의 의미는 이곳이 세속을 벗어난 세계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뒷받침된다. 심능숙이 ‘신이 먼 곳에서 온 객으로 그 몸을 빌렸은즉, 정녕 월나라에서 온 객이로다. [神以遠客借之, 則越中之客]’라고 명시한 점이나, 홍의의 태몽을 꾸 장소가 신령한 산이었다는 사실은 본문에서는 ‘신’과 ‘인’의 개념이 유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월나라로 들어오라는 통첩은 손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 즉 홍의가 병든 몸의 굴레를 벗고 본래 존재인 신인(神人)으로 회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남고시사 동인들이 공유했던 선가적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신인 장상군(長桑君)에게 약을 받아 귀물을 투시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진월인(秦越人) 고사’³⁹⁾는 이들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진월인의 신선술은 심능숙과 남고시사 동인들이 함께 익혔던 양생술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당대 신선술을 구사하여 동시기 여러 이연담의 주인공이 된 이패랭이를 다룬 「이은전」이 주목된다. 「이은전」의 입전은 심능숙이, 서문은 이익모가, 기문(記聞)은 이연수 제공 자료로 저술되었으며, 작품 창작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홍의와 절친한 인물들이다.⁴⁰⁾ 이는 홍의를 들

39) 춘추 시대 명의 편자(扁鵲)의 고사. 줄여서 월인이라 부른다.『史記』 卷105, 「扁鵲列傳」)

40) 진민희, 앞의 글, 2020, 213~245쪽.

러싼 초월적 서사가 남고시사 내의 보편적 인식 체계 안에서 탄생했음을 뒷받침한다.

결정적으로 심능숙은 명견환인 이야기를 끌어와 홍의의 생애를 규정했다. 하늘의 견책으로 인해 잠시 이승으로 유배 왔다는 인식은 도선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뛰어난 문인이 신선의 몸을 빌려 현세에 머물다 돌아간다는 서사는 이백이나 정철이 스스로를 ‘적선(謫仙)’으로 인식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홍의의 병든 몸은 신선이 잠시 빌린 초월적 공간으로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적선 모티프를 통해 그의 실존적 의미가 재구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 주요한 지점은 심능숙의 셈법이다. 홍의의 향년은 43세인데, 14세에 병이 들어 30년 뒤에 세상을 떴으니, 신선이 홍의의 몸을 본격적으로 빌린 것은 장애 이후의 삶이 된다. 그렇다면 수암은 ‘잠든 집’이지만 ‘한번의 깨어남(一覺)’을 기다리는 집이며, 병든 몸은 곧 신선이 잠시 빌려[暫借] 현신한 공간이자, 천독과 같이 하늘이 부여한 삶의 형식으로 재정의된다. 따라서 홍의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닌, 잠에서 깨어나는 일각의 순간, 즉 본래의 영적 공간으로 귀환하는 월나라 손님의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이 된다.

홍의의 죽음과 탄생, 홍의의 꿈과 부친의 꿈, 잠들고 깨어남이 완벽한 대구를 이룬 「홍의전」의 구조와 의미의 중첩은 매우 탁월하다. 수암이라는 당호는 도선적 세계관을 통해 홍의의 병든 몸이 그와 교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초월적 서사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홍의의 장애는 홍의에게도, 심능숙에게도, 그리고 교유자들 간에도 홍의가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한 ‘장애물’이거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홍의의 실존적 완결성을 증명하는 미학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5. 결론

본고는 심능숙의 「홍의전」에 나타난 ‘천독’과 ‘수암’의 서사를 통해, 병든 몸이 배제의 표상이 아니라 문학적 주체성의 토대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홍의의 장애는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키는 조건이었으나, 동시에 독서와 교류를 매개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병든 몸에 침잠하는 대신 『한서』 탐독을 통해 자신의 지아를 역사와 텍스트 속에 기탁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문학이 소외된 몸을 사유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임을 보여준다.

홍의가 『한서』에 침잠한 것은 역사적 평가의 장 속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려는 역사의식의 발현이었다. 『한서』에 반복적으로 수록된 지아자와 부지아자의 서사는 홍의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개별적 불운이 아닌 구조적·역사적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 이를 통해 그는 현실에서 결여된 인정을 역사적 시간 속에서 보완하고, 지기와 지아를 식별하는 기준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서는 골방에 가두었던 ‘비경’을 문학적 연대의 중심인 ‘천독지사’로 호출하는 동력이 되었으며, 칠칠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 중견 문인으로서의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게 하였다. 이처럼 천독은 일반적인 다독을 넘어, 역사와 자기 존재를 일치시키는 사유 방식이었다. 심능숙은 홍의가 7천 번 읽은 『한서』를 물려받았으며, 그의 문집명 『후오지가』는 ‘후대가 나를 알아주면 죽하다’라는 뜻으로 홍의가 지향했던 지아의 서사를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암’의 서사는 홍의의 병든 몸을 잠시 빌려온 존재로 재해석함으로써, 장애를 초월적 시간성·장소성과 결부시키는 상상력을 제시한다. 심능숙은 홍의의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30년을 신선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속세에서 잠시 몸을 빌린 기간으로 정의했다. 이는 ‘명건환인’의 관념과 적

선 모티프를 통해 병든 몸을 영적 공간과 이어지는 장소로 재의미화한 것이다. 결국 홍의의 죽음은 존재의 종말이 아닌 월나라로의 귀환을 위한 한번의 깨어남으로 승화되었다.

「홍의전」은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나 비극적 결핍으로 인식하지 않고, 홍의를 홍의답게 만드는 완결된 삶의 서사로 포용하였다. 문학적 연대 속에서 병들고 소외된 몸이 어떻게 치유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이 텍스트는, 고전 비평의 지평에서 신체 인식이 어떻게 존재론적 주체성과 초월 서사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입증한다.

참고문헌

權常愼, 『西漁遺稿』

沈能淑, 『後吾知可』

『陽川郡邑誌』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1~484쪽.

_____, 「燕巖의 우정론과 西學의 영향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265~288쪽.

박기석, 『연암 소설의 심층적 이해』, 집문당, 2008, 1~357쪽.

박동욱, 「조선 후기 한문학과 ‘자의식의 확대」, 『어문연구』, 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3, 237~264쪽.

박수밀, 『18세기 지식인의 생각과 글쓰기 전략』, 태학사, 2007, 1~231쪽.

_____, 『오우아 : 나는 나를 벗 삼는다』, 메가스터디Books, 2020, 1~298쪽.

배주연, 「마테오 리치 『交友論』과 한·중에서의 反響」, 『比較文學』 70, 한국비교학회, 2016, 119~142쪽.

송혁기, 『나만이 알아주는 나 : 조귀명 평전』, 글항아리, 2021, 1~390쪽.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2013, 1~348쪽.

이홍식, 「조선 후기 우정론과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회, 2010, 263~300쪽.

장효현, 「沈能淑 文學에 나타난 現實認識」, 『우리文學研究』 32, 우리문화회, 2011, 137~166쪽.

_____, 『심능숙 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1~255쪽.

정 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1~445쪽.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 사우, 2019, 34~46쪽.

진민희, 「小楠 沈能淑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23쪽.

_____, 「조선조 신루기(蜃樓記) 작품군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64,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265~297쪽.

_____, 「조선후기 이인(異人) 이패랭이[李平涼] 관련 서사에 대한 고찰」, 『국문학연구』 42, 국문학회, 2020, 213~245쪽.

_____, 「沈能淑의 楠阜詩社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285쪽.

_____, 「靑松 沈氏 가문의 漢陽 南部 會賢坊 小公洞 家屋 世居와 그 의미」, 『서

울과 역사』 122, 서울역사편찬원, 2026, 89~145쪽.

진재교, 『알아주지 않은 삶』, 태학사, 2005, 5~427쪽.

ABSTRACT

The Ailing and Marginalized Body in *Hong Ŭi chŏn* (洪漪傳):
Literary Healing, Solidarity, and Transcendence

Jin, Min-hui

This study analyzes the “Ch’ŏndok” (天讀, Scholar Reading by Heavenly Mandate) and “Suam” (睡菴, the abode of a slumbering transcendent) narratives in Sim Nŭng-suk’s (沈能淑, 1782-1840) *Hong Ŭi chŏn*, focusing on how an ailing and marginalized body constructs subjectivity through literary healing and solidarity. Hong Ŭi (1765-1807) lived in a state of voluntary isolation as “Pigyŏng” (棊卿) due to physical disabilities affecting his legs and spine, yet he established his subjectivity as a literatus through reading and social activities.

Notably, his peers called him “Ch’ŏndok chisa” (天讀之士), observing how he internalized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e *Hansŏ* (漢書) through seven thousand readings to sublimate his unfortunate circumstances. “Ch’ŏndok” represents a reinterpretation of physical deficiency as ch’ŏnmyŏng (天命, heavenly mandate) for intellectual practice. Meanwhile, Sim Nŭng-suk re-signified the sick body as a transcendental being by interpreting Hong Ŭi’s pen name “Suam” as “a body temporarily borrowed by an immortal.” This interpretation served as a narrative device to transform real physical conditions into temporary ones and position existence within a higher system of meaning. While “Ch’ŏndok” reveals the formation of healing and solidarity through the sick body, “Suam” expands the horizon of perception by employing the chŏksŏn (謫仙, exiled transcendent) motif.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Hong Ŭi’s activities and the concepts of discerning the worth of others (chiin, 知人) and attaining recognition for one’s intrinsic value (chia, 知我) emphasized in late Chosŏn (朝鮮) literati society. Repeated reading was a process of internalizing the lives of others and historical evaluations,

while lecture meetings and poetry society activities allowed Hong Ŭi to overcome isolation and secure his position within the literary community.

In conclusion, *Hong Ŭi chŏn* is a text that illustrates how an ailing and marginalized body experiences healing and solidarity through literary practice and eventually attains transcendental significance. Hong Ŭi's narrative demonstrates that in Sinitic literature, an ailing body is not merely an object of deficiency but can establish ontological subjectivity within the structure of recognition.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multi-layered perception of the body and the possibilities of literary healing in late Chosŏn literature.

Key Words Sim Nŭng-suk (沈能淑), Hong Ŭi (洪漪), *Huoji* (後吾知可), Namgo Sisa (楠臯詩社), Chiaja (知我者, one who recognizes one's intrinsic worth)

논문투고일: 2026.04.15.
심사완료일: 2026.05.12.
게재확정일: 2026.05.17.

